5선 '차르' 푸틴, 스탈린 넘어 종신집권 길 열었다

2000년부터 30년 통치…스탈린의 29년 집권 기간 넘어
득표율 88% 역대최고…백악관·젤렌스키 등 서방은 비판

역대 최고 득표율로 5번 연속 집권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모스크바 선거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현대판 '차르'(황제)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5선을 확정하며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푸틴은 이번 선거에서 88%를 얻어 러시아 대선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8년 푸틴 대통령이 기록한 76.7%다.

러시아 대선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

2000·2004·2012·2018년에 이어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6년간 집권 5기를 열게 됐다.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 집권 기간을 넘어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2000년에 태어난 러시아인은 서른이 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만 겪는 셈이다.

1999년 12월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대행을 맡은 푸틴 대통령은 2008-2012년에는 총리로 물러나 있었지만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올리고 실권을 유지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에 열리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 이론상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푸틴 대통령은 18세기 예카테리나 2세의 재위 기간(34년)도 넘어선다. 러시아제국 초대 차르(황제) 표트르 대제(43년 재위)만이 푸틴보다 오래 러시아를 통치한 인물로 남게 된다.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한 푸틴 대통령은 2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푸틴 5.0' 시대에는 추가 징집 등 특별군사작전 정책이 강화되고 서방과의 대립도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부르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90%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로 독재자를 뜻하는 '스트롱맨' 평가가 따라다니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한 저항을 받았다.

선거 첫날인 15일에는 곳곳에서 투표함에 녹색 액체를 쏟거나 투표소 방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접경지 침투 시도도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지난달 옥중 사망한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자들이 주도한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가 열렸다.

특별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야권 인사들의 출마가 가로막히는 등 이번 대선이 사실상 '답이 정해진' 선거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을 전망이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 대선에 대해 "분명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전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라고 표현하면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발니의 최측근 레오니트 볼코프는 푸틴 대통령의 높은 득표율 예상치에 대해 "현실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낙선이 확정된 후보들은 일찌감치 푸틴의 승리를 인정했다. 2위가 유력한 하리토노프는 "우리는 선거 기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행했다"고 말했고, 다반코프는 "승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푸틴"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정권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완전 부적절" 반박

국제사회 비난 굴하지 않을 것
가자지구 라파 공격 강행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강경 기조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위대가 17일(현지시간) 텔아비브 시내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내에서는 강경 일변도의 네타냐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몰린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를 비판하며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네타냐후 총리를 "평화의 중대한 장애물"로 규정하며 사실상 교체를 요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발언을 두둔한 데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17일(현지시간) CNN 방송 인터뷰에서 슈머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그가 말한 것은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매 민주주의 국가에 가서 그곳의 선출된 지도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것은 이스라엘 대중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바나나 공화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바나나 공화국이란 바나나 등 한정된 농산물이나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부패와 외세 개입으로 불안정한 권위주의 정권 국가를 싸잡아 경멸적으로 부르는 용어다.

유대계 미국인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친이스라엘 성향 중진인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상원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키워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극단주의자들과 연합해 이스라엘의 국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한다"며 "이스라엘에 새로운 선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곧바로 네타냐후 총리의 교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연설을 "좋은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민간인 피해를 줄이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인내가 바닥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주례 각료회의에서도 강경 일변도의 가자지구 전쟁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미국 등 동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무법천지 아이티 수도 '갱단'이 80% 장악

미국, 자국민 대피 전세기 파견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갱단이 수도 대부분을 장악하며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유엔은 갱단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추정했다.

포르토프랭스에서는 매일 경찰과 갱단 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도로는 텅 빈 상태다.

도시 외곽으로 가는 도로나 항구로 통하는 길은 갱단에 의해 막혔고 포르토프랭스 국제공항도 폐쇄됐다.

주요 식료품점에서는 식품이 동났고 주유소에서는 연료가 거의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혈액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유엔아동기금은 포르토프랭스 항구에서 구호품 컨테이너 17개 가운데 1개가 약탈당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에는 인공호흡기 등 물품이 들어 있었다.

한 조종사는 "도시 전체가 갱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치안 부재 상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아이티에 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바닥 기는 日기시다 지지율…67% '지지하지 않아'

집권 후 바닥을 기고 있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16-17일 1천65명(유효응답 기준)을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를 보면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7%로 전월 조사보다 2%포인트 악화했다.

자민당이 2012년 정권을 되찾은 이래 아사히신문 정례 조사에서 '(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로는 최고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2%로 이 신문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최저를 기록한 지난달(21%)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 대응에 대해 '평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13%에 그쳤고, 반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81%를 차지했다. /연합뉴스